

청년의 꿈이 스타트업과 만날 때...

신한금융, 채용박람회 인재 채용의 場으로

스타트업 기업과 인재 매칭 지원 90여명, 스타트업 실제 채용 고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신한타워에서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2019'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발표한 신한퓨처스랩 육성 스케일업(Scale-Up) 전략의 일환으로 신한퓨처스랩의 스타트업 기업과 우수 인재의 매칭을 통한 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준비됐다.

취업박람회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신한퓨처스랩 출신 스타트업 37개사가 참가했다. 개발·기획·경영지원·디자인·마케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 면접이 이뤄졌다.

이틀간 진행된 박람회에는 1000여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방문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취업과 이직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박람회는 '면접·상담 존(Zone)'과 '강연·토론 존'의 두 구역으로 나눠 행사가 진행됐다. '면접/상담 존'은 기업과 구직자간 사전 매칭 시스템을 적용해 우수 스타트업과 우수인재의 1대 1 현장면접을 진행해 인재 매칭의 효율성을 높였다.

'강연·토론 존'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참여 스타트업의 홍보 세션 등 다양한 취업정보 킷텐츠가 제공됐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왼쪽)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신한타워에서 열린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2019' 현장을 방문해 스타트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인 와디즈 신혜성 대표와 어니스트펀드의 서상훈 대표가 각각 '스타트업과 창업가 정신', '스타트업 창업 스토리(Story)'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연 시간도 참가자들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채용을 희망하는 37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기업소개와 희망 인재상, 기업 복지 등의 기업 정보와 함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선배직원들의 실제 취업 및 이직 성공담 공유 등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다.

신한퓨처스랩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구직자들의 예상보다 높은 관심에 많이 놀라했다"며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채용을 고려중인 우수한 인재가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채용박람회 첫 날인 12일에는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뿐 아니라 구직자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회장은 "많은 구직자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꿈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신한퓨처스랩 동문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남성기업 역차별 시대



기자 수첩

배한님 (산업부)

"여성 경제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운숙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회의 때마다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위 향상, 정책 지원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여성 장관인 박영선 장관께서는 그 부분을 다 받아서 해결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남성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0일 '제23회 여성경제인의 날'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147만 여성 경제인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에서 여성 기업을 위해 남성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 '농담'삼아 나온 것이다. 정말 여성 기업인의 지위가 남성 기업인을 역차별할만큼 올라선 것일까.

이날 행사를 시작하며 정운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 경제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OECD 국가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경

제참가율을 59%에서 OECD 평균 수준인 6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 5월 24일, 박영선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찾았다. 간담회를 열고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의준 상근부회장은 말했다. "역대 장관 취임하신 후 여성기업을 찾기까지 평균 5개월이 걸렸는데 (박영선 장관은) 한 달 반만에 여길 오셨다. 여성 장관이 오시니까 저희 대우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여성 경제인들은 이제 OECD '평균'까지 가보자 말한다. 여성 장관이 취임해서야 대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여성 기업인의 목소리를 3개월만 먼저 들어준 것만으로도 차이를 느낀다고 말했다.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여성경제인의 날 축하영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말했다. "여전히 많은 불편과 차별이 여성 경제인을 짓누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성 경제인을 짓누르는 돌이 아주 조금 덜리기 시작했다. 그 시작을 '역차별'이라 말할 수 있을까.

/ericbae1683@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5일 (음 6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웃지 않고 보면 날은 의미 없는 날. 48년생 자식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좋은 결과. 60년생 위기를 겪으면 내 편이 누군지 안다. 72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해서 가라. 84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
- 소** 37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4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의 날. 61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면 보답을 받는다. 73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조심. 85년생 남에게 미루지 말고 마무리를 해야.
- 호랑이** 38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다. 50년생 어항 속 물고기가 신세처럼 답답하고 지루하다. 62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74년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하루. 86년생 조만간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받을 오후.
- 토끼** 39년생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간다. 51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63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75년생 유혹이 있으니 충심을 잘 잡자. 87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 편 보기 좋은 날.
- 말** 40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52년생 내용만큼 포장도 중요하다. 64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 76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한다. 88년생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 뱀** 41년생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수확. 53년생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65년생 기회는 멀게 오니 스스로 노력. 7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겸손하도록. 89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은 버려라.

- 말** 4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54년생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조금 양보. 66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한 날. 78년생 흉터물은 저절로 맑아지니 조금해하지 마라. 90년생 부모님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
- 양** 43년생 뜻밖에도 집은 내 이름으로. 55년생 아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오니 주의. 67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전이 필요. 79년생 조연도 사랑을 받으며 들어야 한다. 9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 원숭이** 44년생 인생은 세움지마니 좋은 일도 올 것이다. 56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68년생 물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80년생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92년생 내가 놓은 밧에 내가 걸린다.
- 닭** 45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성사. 57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 신경 쓰고 행동도 조심. 69년생 농친 고기를 아끼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1년생 머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다 기다려라. 93년생 으쓱할 일이 생긴다.
- 개** 46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주변 사람이 떠난다. 58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70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래가 순조롭다. 82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는 일을 그르친다. 94년생 분위기를 바꿔보라.
- 돼지** 47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자. 59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71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83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다. 95년생 천하를 다 얻은 듯한 하루.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6					
7	3			5	2			
	4			3				
	1	7	6	9	4			
8							2	
4		6	3		2		9	
	8						3	
9		5	2				4	

								8
	8					1	4	9
4		1					3	5
2		6	9		4			
		3		8			2	
5		8				6	2	9
6		4	5					
7								

스도쿠 정답								
9	8	2	1	5	3	6	4	7
2	6	1	8	4	9	5	7	3
6	5	7	3	8	2	1	9	4
3	1	4	5	7	6	9	8	2
5	8	6	9	2	1	3	7	4
9	6	4	1	8	7	2	5	3
1	2	5	8	7	6	4	9	3
8	3	9	2	6	1	8	7	5
7	4	8	9	3	5	2	6	1



김상희의四季

회사정리

석가모니부처님은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고(苦)라고 보았다.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고통을 잉태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팔고(八苦) 또한 얘기한다. 생로병사의 네 가지 괴로움에 더하여 원증회고 구득부고 애별이고 그리고 오음성고가 있다. 인간사의 근원적인 고통은 결국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대별된다. 존재로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몸의 속명이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듯 조우해야 하는 것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인연들과는 헤어지기 싫어도 이별해야 하는 감정은 모두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젊었을 적에 본 영화 중 '연인'이라는 영화가 기억난다. 그 저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이야기라기 보다는 뭔가 감각적 관계에 탐닉했던 성숙한 소녀와 부자 남자의 그저 그런 애정행각인 듯도 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에 남는 것은 굳이 사랑의 감정기기를 부정하고 싶었으나 떠나는 메콩 강의 배 위에서 돌아서서는 가슴을 내리치며 속울음을 참아내야 하는 애별이고였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사 원증회고고 애별이고인 것이다. 가요 중에 바다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간다는 절절한 가사처럼 산 자끼리의 이별에도 강과 바다가 한 몫을 하듯 산자와 망자의 이별 이승과 저승과의 경계에도 항상 강이 있음을 안다. 그리스 로마신화에서는 '스티스'라는 강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고 인도의 전통에는 갠지스강에 유골을 뿌려 제 세상으로 가는 길목의 역할을 하게 한다. 불가에서는 사바세계에서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고 간다는 배를 일러 반야용선(般若龍船)이라 한다. 회사정리라 할지라도 반야용선을 탈 수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없는 축복이자 복덕이니 마음을 닦아볼만 하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2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45호

문제 제공 = **보스**